



실천전략으로는 평신도로 하여금 일대일양육훈련을 통해 평신도사역자로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데 있습니다

One to One Nurture System is A training program for laypeople to be a lay minister

잠자는 거인을 깨웁시다!

여호와와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옴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와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욘1:1~5]



바로 궁내 대신 오바다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와 선지자들을 멸할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백 명을 가지고 오십 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왕상18:3-4] 오바다는 이세벨이 여호와와 선지자를 죽일 때도, 백명을 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던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오바다는 왕궁 맡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악한 아합과 이세벨에게도 인정을 받았기에 그는 왕궁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바다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며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면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주전 750년 지중해의 한 항구도시 옴바에 선지자 요나가 배표를 사서 승선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다시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지시한 곳은 니느웨였는데, 정반대의 길을 택하여 자신이 선택한 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요나는 배를 타고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을 피해 배 밑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 잠을 청했습니다. 요나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요나의 코고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잠자고 있는 평신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나의 코고는 소리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윌리엄 맥래(William McRae)는 오늘날의 교회를 비유하여 마치 축구 경기장의 모습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즉 교회에 운집하는 수많은 성도들은 경기장의 관객으로, 격무를 감당하는 교회의 유급 직원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는 프로 선수들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안고 있는 기형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결국 관객으로 전락한 대다수의 성도들은 사역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요 평가자일 뿐이고, 섬김과 봉사의 여러 업무는 유급직원과 소수의 평신도 헌신자들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대한 그룹이 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평신도 그룹입니다. 교회 안에는 1% 교역자와 99%의 평신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절이 아합왕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걸출한 인물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들은 아합왕 시절에 선지자 엘리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합 왕궁에 한 인물을 준비하셨는데, 그가

현시점에서 우리는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1명의 엘리야에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오바다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 명[왕상19:18]에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영향력을 되찾는 유일한 길은 평신도를 깨우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영향력을 회복하고, 상실한 거룩한 능력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평신도를 재발견하는 것에서 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본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를 선도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잠자는 거인인 평신도를 깨워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교회 건물을 새로운 양식으로 바꾸어 짓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의 가운데 줄을 하나 더 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체요, 얼굴인 평신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회는 평신도를 사역자로 발굴하고, 그들 속에 잠재된 역량을 이끌어 내어 교회를 위해 진정한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해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오늘의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프로젝트

마라나타 프로젝트는 김진홍 목사님의 목회 비전인 성서 한국, 선교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고자,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신광두레교회를 통하여 통일한국과 열방을 복음으로 회복시키고자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마라나타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반도 프로젝트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화하는 계획입니다.
둘째는 땅끝 프로젝트로 백두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화하는 계획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8~2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22:20]

1. 추진 배경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사역과 사도 요한이 밋모섬 유배지에서 우리에게 보낸 마라나타[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을 방문하신 초림의 사건이 있는 후 두 번째 방문할 재림의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속히 다시 올 것이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가장 순종을 잘한 사람이 바로 사도바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안디옥에 전파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은 소아시아와 지중해를 건너 마게도냐를 통하여 빌립보, 데살로니아,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9~11장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Panorama)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던 복음이 사도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전파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방인의 수가 충족되면[롬11:25] 이 복음은 예수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은혜가 주어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만, 복음의 진행 방향은 반대로 서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프로젝트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복음의 진행 방향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거쳐, 중국과 아시아를 넘어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파하려는 계획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거대한 사탄의 견고한 진이 구축되어 있는데 바로 이슬람 세력과 힌두 세력과 불교 세력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10/40 Windows 지역의 이슬람 문화권과 힌두 문화권과 불교 문화권을 대상으로 복음화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 추진 방향

마라나타 프로젝트는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반도 프로젝트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화하는 계획이고, 둘째는 땅끝 프로젝트로 백두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1) 한반도 프로젝트

신광두레교회와 본 교회에서 설립한 평신도 사역자 훈련원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담당하는 한반도 복음화 계획입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를 통하여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워 통일을

준비하며, 세워진 평신도 사역자들로 하여금 통일 후 폐허된 북한교회 재건과 북한 주민을 복음화 하려는 계획입니다.

2) 땅끝 프로젝트

백두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화하려는 전략으로 인도 나갈랜드주에 설립된 센터와 말레이시아 니그리스 밀란주에 세운 센터를 Control Tower로 하여 이슬람 문화권과 힌두 문화권과 불교 문화권을 복음화하려는 계획입니다.

3. 세부실행 계획

1) 국가별 선교 Net-Work System 구축

이슬람권과 힌두권과 불교권에서 사역하는 현지인 사역자들과 파송하여 선교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과 이 지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크리스천 기업들을 Net -Work화 하여 체계적으로 복음화하려는 계획입니다.

2) 국내 마라나타 프로젝트 시스템 구축

- 1차 산업(농업)을 근간으로 6차 산업인 농업 융·복합 산업 육성
- Global Digital-Work Mission과 협력체제 구축
- 글로벌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중고등부, 청년부, 두레 국제학교와 연계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이슬람 문화권 선교 Net-Work System 구축

3) 국가별 전담제

선교 Net-Work System 구축이 이루어지면 국가별 전담 리더를 세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선교가 이뤄지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4) 선교 컨퍼런스 개최(Maranatha World/ International Conference)

해외에 구축한 선교센터(인도, 말레이시아 등)에서 매년 1회 선교 컨퍼런스를 통하여 비전과 사역을 공유하며 선교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5) 마타 펀드 조성하여 1,000개 기업, 10만 명의 근로자 발굴 및 육성

- 산업별 포트폴리오 구성하여 균형 있게 업체 발굴 (스마트 팜, 의료, K-Culture, k-Food, 커피 업체, 한국어 교육 등)
- 회사 설립부터 단계별 맞춤 지원하여 업체 발굴 및 육성 (인큐-베이팅, 엔젤 투자, R&D자금, 정책자금, 펀딩, 금융권 대출)
- 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부서 설치 운영
- 곱셈 방식으로 업체 발굴(5년 후 매년 2개 업체 설립)
- 청년 CEO 발굴 육성(가족 세습 금지)
- 수익 일부 펀드로 기부하여 업체 발굴 육성자금 마련
- 농금원과 연계하여 말레이시아에 식품 크러스트 단지 조성(할랄 인증)

